

영국 퇴직연금보험 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 이경희 선임연구원

< 요약 >

-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자산을 축적한 영국에서는 퇴직 이후 축적된 연금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보험 시장이 발달하고 있음
 - 이처럼 퇴직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DC형 제도의 성숙, 퇴직인구의 증가, DB형 제도의 연금 구매 현상 등에 기인함
- 영국에서는 퇴직연금자산에 대해 현금인출도 허용하고 있으나, 현금인출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금자산의 25%로 제한함
 - 퇴직자들은 연금자산을 활용하여 각종 연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회사들은 표준하체연금, 물가연계연금, 고정성장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보험의 활성화 유도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자산의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장치가 미비하며 연금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퇴직자 니즈에 부응한 다양한 퇴직옵션 제공과 더불어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정비가 필요함

I. 문제제기

- 2005년 12월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좀 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축적 기간 이후에 이를 연금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데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연금 세제에 의하면,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확대(600만원→900만원)하였으나, 일시금

수령 시에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분류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에 대한 상대적 인센티브가 크지 않음

* 타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되, 45% 정률공제 및 근속년수 공제(근속년수 1년당 30~120만원)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득세율(8~35%) 적용 함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제도, 관련 상품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시금 수령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음

□ 영국에서는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강력한 연금화(mandatory annuitization) 정책 유도 및 다양한 연금상품의 공급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영국 퇴직연금보험의 제도적 특징

□ 영국에서는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연금자산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상품(pension annuity) 또는 개인연금상품(individual annuity)을 구입하거나 현금인출을 할 수 있으나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상품 구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06년 4월 6일부터 Pension Simplification 규정을 도입하여 모든 퇴직연금자산에 대해 연금자산을 현금인출(pension drawdown)할 경우에는 25%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예를 들어, 퇴직연금자산 £15,000를 현금인출 할 경우 £2,475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12,527를 현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자산 대비 현금수령금액 비중은 $83.5\% (= \frac{£12,527}{£15,000})$ 에 불과함

영국의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과세 사례

퇴직연금자산	£ 15,000	①
현금으로 25% 인출(비과세 혜택)	£ 3,750	② = ① × 25%
과세대상자산	£ 11,250	③ = ① - ②
세금(2004년 4월 기본세율: 22%)	£ 2,475	④ = ③ × 22%
순일시금(net lump sum)	£ 8,775	⑤ = ③ - ④
총 현금수령	£ 12,527	⑥ = ② + ⑤

자료: www.sharingpensions.co.uk

- 영국의 퇴직연금가입자들은 퇴직시점에서 연금전문가*로부터 퇴직연금보험을 구입할 것인지 현금인출 할 것인지 자문을 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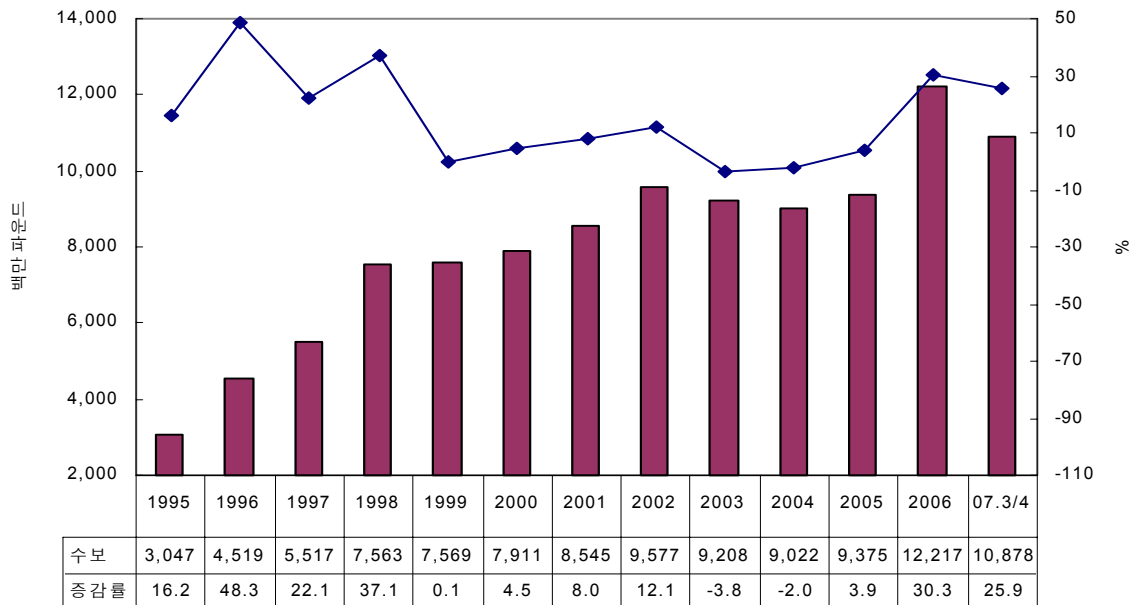
* 퇴직옵션(retirement options)에 대한 자격(K10)을 소지한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 퇴직자 개인별로 근로, 재무, 건강 상태가 다르고 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퇴직옵션을 선택하게 됨
-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개인연금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연금화 함

-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퇴직연금자산을 연금소득(pension income)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시납으로 가입한 퇴직연금보험의 신계약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일시납 수입보험료 추이는 1995년 30억 파운드에서 2002년에는 96억 파운드로 높아지고, 다시 2006년에는 122억 파운드로 증가하여 1995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하였음
- 2007년 수입보험료는 145억 파운드 정도로 추정됨
- 2003~2004년을 제외하고는 신계약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06년 30.3%, 2007년 3/4분기 25.9%를 기록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영국의 일시납 신계약 퇴직연금보험 추이



자료: 영국보험협회(www.abi.co.uk)

□ 이와 같이 영국에서 퇴직연금보험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DC형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축적된 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임

- 영국에서는 매년 29만 2천명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인구의 증가로 인해 공개시장에서의 연금 구입이 증가함
- DB형제도의 경우에도 주가급락에 따른 적립률 하락, 퇴직연금부채의 시가평가를 요구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제도를 종료하고, 보험회사에게 연금부채를 매도함에 따라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거대한 매수(bulk buyouts)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III. 영국 퇴직연금보험 상품의 다양성

- 영국에서는 위험률이 세분화된 상품과 노후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물가연계연금 등 다양한 상품이 공급됨으로써 연금시장의 발달을 촉진시킴
- 영국 퇴직연금보험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태에 따라 연금가격을 달리 설정한다는 것임

- 표준하체연금보험(substandard annuities)이란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장래여명이 표준체보다 짧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입자에게 높은 급부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함
-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과 반대로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보험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는 데, 표준하체 연금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언더라이팅 및 요율을 차등한 것임
- 1995년에 도입된 표준하체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퇴직시점부터 75세 연령 구간에서 구입하며, 증대연금보험(enhanced annuity) 또는 중대질병연금(impaired annuity)이라고 불림
- 중대질병연금은 영국 내 연금상품 판매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04년 1/4분기~4/4분기 동안 성장률은 44%에 달함

표준하체연금의 상품유형은 흡연자 연금, 미혼자 연금, 직종과 지역에 근거한 연금,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상태를 반영한 연금*, 중대질병연금 등으로 구분됨**

* 심근경색, 만성천식, 다발성경화증, 뇌졸중, 고혈압, 암(폐, 유방, 대장, 간, 췌장), 고지혈증 등이 해당됨. 50세 이상 영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심장질환(37.0%), 암(24.0%), 뇌졸중(12.0%) 등으로 조사됨

** 만성적인 심장질환, 악성종양, 만성적인 폐질환, 중풍, 파킨슨병, AIDS, 호지킨 병, 알츠하이머 등이 해당됨

□ 표준하체연금보험 상품의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일기준(single-class), 복수기준(multi-class), 개별기준이 활용되고 있음

- 단일기준은 언더라이팅 기준으로 단일한 항목(예: 흡연)만을 사용하는 것이며, 복수기준은 한 개 이상의 기준(예: 직종 + 지역)을 사용하는 것임
- 개별기준은 개인별로 구체적인 건강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중대질병연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단일기준과 복수기준은 별도의 건강검진 없이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표를 사용하지만, 중대질병연금은 개인별로 기대여명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표준하체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약자에 대해 주치의 소견서(General Practitioners Report)를 요구하여 언더라이팅 자료로 활용함

□ 표준하체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가격설정은 연령조정(age rating)과 위험률조정(mortality adjustment) 방식 또는 양자의 조합방식이 사용됨

- 연령조정이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언더라이터가 기대여명을 건강상태가 유사한 연령으로 상향조정(rate up)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65세 가입자에 대해 5세를 높인 70세 연령을 적용하여 높은 연금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임
- 위험률조정이란 표준 사망률보다 높은 배수를 곱한 사망률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표준 대비 200%, 500% 등을 적용하여 연금급여액을 산출함
- 일반적으로 표준하체 연금의 연금수급액은 표준체 연금에 비해 30% 정도 높지만, 중대질병연금인 경우에는 2배 이상 높음

표준하체와 표준체 연금급여액 비교

가입자, 가입금액	분류	연금급여액
60세 남성 £ 100,000	중대 질병(impaired)	£ 15,028
	표준체	£ 6,620
60세 연생 £ 100,000	중대 질병(impaired)	£ 8,345
	표준체	£ 6,300
65세 남성 \$100,000	표준체	\$8,187
	70세로 언더라이팅	\$9,429
	75세로 언더라이팅	\$11,175
	80세로 언더라이팅	\$13,676

자료: LIMRA International, *Substandard Annuities*, 2006
http://www.sharingpensions.co.uk/pension_annuity3.htm

□ 이 밖에도 연금급여 형태 측면에서 정액연금(level annuity)이외에 물가지수연계연금(RPI and LPI escalation), 고정성장연금(Fixed rate escalation)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 RPI)연계연금: 연금소득이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액이 인플레이션과 연계되어 증가해야 하기 때

문에 연금급여를 소매물가지수에 연계시킨 상품

- 제한된 물가지수(limited price index: LPI)연계연금: 인플레이션을 최대 5%로 제한하여 연금급여에 연계시킨 상품
- 고정성장연금(fixed rate escalation): 연금급여를 고정비율(3% 또는 5%)로 증가시키는 상품
- 연금가입 후 연금 수령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해 확정지급보장기간(guaranteed period)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임

* 5년 보장을 위한 비용은 연금 구입 가격의 약 1.7%라고 함

IV. 시사점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축적된 연금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 이후 성공적인 연금화를 통해 근로기간 동안의 연금자산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 2007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DB형이 1조 2천억원(62.8%)이며, DC형도 7천억원(37.2%)이고, DC형 중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 규모는 1,865억원 수준임
- 2008~2010년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DC형 적립금 및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직 시점에서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제도는 빈약함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DB형에서는 퇴직 후 종신까지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DB형에서도 퇴직 시점에서 사전에 약속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유형에 관계없이 연금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금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25%로 제한하며, 다양한 퇴직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영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에서는 다양한 퇴직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금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력을 높이고 연금구입을 유도하고 있음

-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표준하체연금, 물가지수연계연금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보험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 정책당국도 퇴직연금자산 축적 이후 연금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임

-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전환과 일시금 수령 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퇴직연금보험 상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연금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정책적 상품의 개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들은 연금 수요자들의 니즈에 부합한 표준하체연금, 물가지수연계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관련 언더라이팅 기법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